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36호 상원사동종



파문

우대식

첩첩의 산을 넘어
상원에 산다
어두워져 가는 고원,
희미해져 가는 몇 개의 불빛과
눈발을 만나 악수를 나누는
오래 헤어졌던
길고긴 강물처럼 울려나오는 동종 소리에
몸을 싣고
잘못했다
아름다운 고통이었다
몸을 구부려 빌고 또 빌었다
악기를 타는 비천의 보살이어
천 개의 손을 보여다오
화엄으로 돌아가는
서른다섯 개의 잣꼭지여
어지러운 꿈속에서 잣을 물려다오
발등에 먼지가 고여 수레처럼 살일지라도
상원의 동종이여
소리여
일 개, 만 개의
파문이여,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우대식 시인은... 1965년 강원도 원주 출생. 1999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높은 의자에 앉아 바다를 보다〉, 〈단검〉등.

쇄신부터 용퇴까지 조계종 '자정 얹이'

수좌 일부, 시민단체 등 잇달아 쇄신책 촉구

“살을 도려내는 아픔 속에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몸부림의 첫 단초로 총무원장은 현금의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즉각적으로 퇴진해야 한다.”

“총단 총무원, 본사 주지 총회의원과 주요 사찰 소임자는 무소유 정신에 입각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단 개혁에 앞장서라.” 최근 수좌 스님 일부와 사부대중 연대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중 일부다. 승려 도박으로 시작된 사태가 확대일로로 걷고 있다. 조계종이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종회 차원의 대중공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초반의 참회와 자성의 목소리는 종단 쇄신을 요구하는 격문으로 변했다.

특히 현 상황의 조계종의 '구원투수'로 예상됐던 수경 스님과 중진 수좌들의 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는 종단을 강하게 압박했고,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참여 불교재가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우리는 선우 등이 출세가 단체도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재는 개괄적인 의견만 제시된 상황이지만 추후 종단 대응에 따라 입장을 정하겠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도흠 연대회의 기획위원은 “연대회의는 종권쟁취가 아닌 한국불교의 쇄신과 미

래를 위해 존재한다. 이에 세간에서 떠돌고 있는 총무원장 사퇴 촉구 등을 성명서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총무원장이 한국 불교 쇄신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론이 불거진 직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재임하지 않고, 임기에 연연

자승 스님 “임기 연연하지 않아”

정면 대응... 6월 초 쇄신안 발표

재정 투명화 등 자정 계기 삼아야

하지 않겠다”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자승 스님은 5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시행된 ‘승가 공동체 회복과 종단 안전을 위한 교구본사주지 108배 참회 정진’ 인사말에서 “총무원장에 취임한 지 어느덧 2년 반이 지났고,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다보니 저의 재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종단 쇄신안이 준비되고 있



출재가로 구성된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 연대회의'는 5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쇄신을 촉구했다.

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스님은 “6월 초에 수많은 관심 속에서 종단 쇄신안을 공포할 예정에 있다”며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이 무엇보다 종단의 큰 동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간 과거의 행동과 사고방식으로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가질 수 없다”며 “지금의 고통의 시간을 미래 성장의 토양으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 같은 자승 스님의 발언은 현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본인이 스스로 재임과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고 밝힘에 따라 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불거진 대로 불거진 '원장 용퇴론'과 각종 폭로 후폭풍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결사추진본부 자문회의, 사부대중 연대회의 등에서 제시한 △종단 사부대중 의식 개혁 △총회에 입각한 사부대중 공동체 확립 △출가자는 수행, 재가자는 운영 시스템 정립 △중앙종회 종책모임(계파) 등 종단 혁신이 자승 스님의 과제로 부각되게 됐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 6월 21일 개최

23일 중진회의서... 의원 불징계권 등 논의

종회 계파 해산 각자 결정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가 6월 21일 임시 회의를 열고 도박사태로 불거진 종단 현안들을 논의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5월 23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각 계파 중진 의원 스님 연석 회의를 열고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 190회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특권'으로 문제됐던 종회의원 불징계 조항의 폐지, 축소 등을 임시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결의했다. 또, 지난 총회 당시 의견 수렴 미비로 이월된 산중총회법, 선거법, 교구중회법, 법인법 개제정안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님들은 중헌 중법 테두리 안에서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사태를 풀

어낼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부처님오신날 직후 총회 차원의 연석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 자문회의에서 권고한 총회 종책모임(계파) 해산에 대해서는 “종회 계파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 추진 본부는 5월 22일 문경 봉암사 보리당에서 제3차 자문회의를 열고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종단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종단의 사부대중 의식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청정성을 바탕으로 한 소속지족의 생활문화를 정립하기로 했다. 의식 개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로 의원 고우스님에게 위임했다.

신종일 기자

불기 2556년 불자대상 민병덕, 장미화 씨

5월 28일 봉축 법요식서 시상... 신행·포교에 귀감

불법홍포와 종단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불자를 격려하기 위한 불자대상의 올해 수상자로 민병덕 국민은행장과 가수 장미화 씨가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불자대상 선정위원회)는 5월 17일 “불기 2556년 불자대상” 수상자로 KB국민은행장 민병덕씨와 가수 장미화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행장은 사원으로 입사해 ‘원칙과 소신’을 삶의 기준으로 최고경영자까지 오르는 등 수차례 주의를 실천해왔다. 또한 국군불교후원회장으로 군포교 후원과 독실한 신행활동 등이 타의에 귀감이 돼 불자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표 불자연예인으로 잘 알려진 장미화 씨는 불교TV 사회자, 연등회 리포터 등 불교영상포교에 동참해 왔으며, 자신이 설립한 봉사 단체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행을 전하




민병덕 장미화


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5월 28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됐으며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접 시상했다.

2004년 처음으로 시작된 불자대상은故 안드레 김, 탤런트 김혜옥, 작가 방귀희, 대한수영연맹회장 이기흥, 방송인 이수근,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신종일 기자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계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집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이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헤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에비스님) 모집